

古書의 版事項에 관한 연구

박 재 혁*

<목 차>

- | | |
|-------------------|----------------|
| I. 緒 言 | IV. MARC형식의 적용 |
| II. 版事項의 기능과 기술범위 | 1. 서브필드의 활용 |
| III. 古書의 版事項 | 2. 부호화정보필드의 활용 |
| 1. 기능 및 기술범위 | 3. 활용방법 |
| 2. 記述순서와 방식 | V. 結 言 |
| | 參考文獻 |

I. 緒 言

고문헌의 전산화란 결국 고서의 서지적 내용을 기계가독형 형태로 입력하여 이를 터미날을 통해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서의 경우 그 분류와 편목방법이 일정치 않고 그 형태나 간행의 특수성으로 인해 목록기술방법이 매우 다양하다. 특히 판본에 관한 정보는 신간서의 판차 성격과는 그 기능과 범위에 많은 차이가 있고, 실제로 고서의 서지기술에 이용되는 규칙도 통일되어 있지 않아 고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우선 신간서와 고서간의 판사항의 기능과 범위를 비교하여, 고서만의 판의 특징을 살피고, 이를 기존의 자동화목록형식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 대림전문대학 문헌정보과 전임강사

II. 版事項의 기능과 기술범위

版 (Edition) 이란 “그림이나 글씨 등을 새기어 인쇄에 사용하는 나뭇조각 또는 첫조각” (이희승, 1989) 으로 목판인 경우에는 「雕版」, 활자판인 경우에는 「組版」 그 자체를 의미하며 흔히 ‘판을 바꾸었다’함은 組版을 改組해서 인쇄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改組’라는 것은 도서의 내용을 改訂하거나 신규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조전의 내용을 「初版」이라 하고 이어서 「2版」, 「3版」등으로 순서를 정해 숫자로 표시하여 계속해서 간행된 여러판에 대한 순차를 일수 있게 하므로 이를 「版數」 또는 「版次」라 하고 이러한 정보를 기술하는 부분(Area)을 판사항 (Edition Area)이라 하여 “단행본을 목록하는 목적이 어떤 저작을 다른 저작으로 부터, 동일저작중의 다른 판, 어떤 경우에는 동일 판차중의 다른 발행에서 확인하고 식별하는데 있다”(ALA, 1967)는 점에서 오늘날 목록기술에서 필수불가결한 서지사항의 일부가 되었다.

따라서 이미 인쇄된 도서와 같은 서명과 저자를 갖고 있고, 그 개요가 크게 다르지 않더라도 내용에 추가 및 정정을 한 도서와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 구별하여 “이용자측면에서는 최신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전거를 제공해준다는 것”과 도서관 측에서는 “도서선정시 복본구입의 방지 및 최신자료의 수입하도록 하는 것이 목록 기술상에서 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이명규, 1989). 그러나 실제로 판사항으로 취급하고 있는 범주는 매우 다양하여, 서지기술 시 매우 혼동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를 모두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植田稔久次, 1992).

1) 실제로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해서 조판을 개조한 것.

e.g. 제2판, 2訂, 개정판, 신정판, 전정판, 개정신판, 신판, 증보판, 증보
신판, 개정증보판, 최신판, 59년증보판, 개제증보판, 신장개정판 등

2) 원칙적으로 동일한 서명, 동일저자, 동일내용이지만 출판자가 다른 것.

e. g. 新潮社版, 講談社版 등

3) 도서의 번역 및 사용언어를 나타낸 것.

e. g. 千一夜物語 (Victor Madrus)

千一夜物語 (Richard Francis Burton)

4) 도서의 내용과 용도를 판표시의 형태로 표현한 것.

e. g. 小學上級版, 抄録版, 黃版, 清版, 男性版, 完全版, 完本, 定本 등

5) 동일저작물이지만 장정의 형태가 다른 것.

e. g. 豪華版, 愛藏版, 豪華愛藏版, 廉價版, 特裝版, 特別版, 新裝版,
保存版, 限定版, 普及版, 華裝 등

6) 동일저작물이지만 판형이 다른 것.

e. g. 縮刷版, 大型版, 大活字版, 机上版, 데스크版, 新書版, 文庫版 등

7) 연속간행물에서의 연차, 회차, 권차를 의미하는 것.

e. g. 『00년도판』 등

이상에서와 같이 다양한 판의 종류를 자세히 살펴보면 판의 기록목적이 “동일 서명과 동일 저자로 이미 간행된 도서와는 그 개요가 같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변경이 가해진 도서를 구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때 2) 이하의 경우는 실제의 원판이 개조된 것으로 볼 수 없음으로 판차에 관한 정보라고 할 수 없으나 대부분의 목록규칙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 판정보의 채택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KCR3》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없이 “...그것이 그 저작의 다른 판과의 내용적 형태적인 변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주제를 같이하는 다른 도서에 比한 그 저작의 특성을 설명하는 어귀인 경우에는 그 쓰임새를 참작하여 잡제 또는 서명의 一部로 보아 처리한다” (한국도서관협회, 1993) 라고 되어 있어 다른

판과 내용적인 개정뿐만 아니라 형태적인 변이가 있는 것이면 다른 판으로 보고 판사항에 기록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저작의 특성을 설명하는 어귀”를 갖고 있는 판이 위의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를 가리키는 말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영인판(본)과 복사판(본)임을 나타내는 어귀가 있을 경우에 이를 판사항자리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표시가 필요할 경우 이를 주기사항이나 잡제 또는 서명으로 처리한다”(한국도서관협회, 1993)라고 되어 있어, 영인판(본)과 복사판(본)의 경우는 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판표시가 아니라 실은 해당도서의 판 또는 도서자체의 형태가 변화된 것을 보충 설명해주는 용어로 간주하여 판사항으로 처리하지 않고 주기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 영인판(본)과 복사판(본)을 판사항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NCR》에서는 판표시의 범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별도의 항목을 두고 있는데, 즉

- 2.2.1.1 (판표시의 범위) 판표시에는 통상 서수와 판, 또는 다른 판과차이를 나타내는 「改訂」이라든가, 「新」이라는 말과 판이라는 용어가 결합되어 형태가 있다. 여기에 약간의 어구가 부가되어진 것도 있다.
- 2.2.1.1A 인쇄원판, 마스터-등은 동일하여도 外裝에 차이가 있거나, 어떤 특정한 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판으로 취급한다.
新裝版 豪華版 普及版 限定版 私家版 縮刷版
- 2.2.1.1B 판으로 표시되어 있어도 실제로 卷次, 回次, 年次 등으로 해당하는 경우는 별도의 서지사항으로 취급한다.
- 2.2.1.1C 刷次는 기록하지 않는다. 다만, 색차의 표시중에 특히 改訂, 增補 등의 표시가 있으면, 그것을 부가적표시로 기록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NCR》에서는 《KCR3》와 달리 “外裝에 차이가 있거나, 어떤 특정한 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日本圖書館協會, 1987)도 판으로 취급하여 그 실례를 들고 있는 등 판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명확하지는 않다. 한편 AACR2에서도 대상범위에 대한 특별한 언급없이 “판표시여부에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에는 Edition, Issue, Version 등에 해당되는 용어가

있으면 그것을 판사항의 범주로 해도 좋다”(ALA, 1988)는 기록이 있을 뿐이며, 다만 AACR에서는 “재쇄 또는 복간은 특히 서지적인 중요성이 있는 도서일 경우에만 기재한다”(ALA, 1967)고만 되어 있어 판사항에 대한 범주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요약해보면 다음표와 같다.

| | 한국목록규칙 (KCR3) | 일본목록규칙 (NCR) | 영미목록규칙 (AACR2) |
|----------|--------------------------------------|--|--|
| 기술 범위 | 다른 판과의 내용적 형태적 변이가 있는 것을 판의 범주로 함. | 내용이 개조된것은 물론 外裝에 차이가 있거나 어떤 특정한 판으로 되어 있는 것. | Edition, Issue, Version과 같은 용어가 있는 것은 판사항에 포함. |
| 기술 순서 | 서명저작사항 다음에 기재 | 서명 저작사항 다음에 기재 | 서명 저작사항 다음에 기재 |
| 기술 방식 | 옴름 정보원에 표시 되어 있는 用字대로 기재 | 정보원에 있는 대로 표시 | 용어 그대로를 표시 |
| 비고 | 영인본, 복사본 및 저작의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는 판사항에서 제외 | 부가할 내용이 있으면 각괄호안에 기재 | 복제본인 경우는 반드시 주기에 원본에 관한 내용을 기술 |

Ⅲ. 古書의 版事項

1. 기능 및 기술범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판에 관한 정보를 기술하는 목적은 1) 이용자에게 최신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한 것과 2) 도서선정시 복본구입의 방지 및 최신

자료를 수입하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주로 판차를 내용에 추가 및 정정을 한 도서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로 생각했으나 고서의 경우는 이와 달리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는 물론 학술연구의 완벽한 인용자료가 되기 위해서 그 간행시기의 추정이나 더 큰 중요한 기능이 되므로 그 기술대상의 범위도 그만큼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漢籍編目規則》(成均館大學校中央圖書館 編, 1962)

- 1) 시대적구별: 高麗版, 宋版, 明版 등
- 2) 지역적구별: 全州版, 海印寺藏版 등
- 3) 인쇄방법에 의한 구별: 石版, 影印版, 寫眞版 등
- 4) 판재종류에 의한 구별: 木版, 鑄字版, 活字版 등
- 5) 간행동기에 의한 구별: 勅版, 欽定版 등
- 6) 간행기관에 의한 구별: 內閣版, 刊經都監版 등

《古書目錄規則》(白 麟, 1966)

- 1) 印本: 活字本, 木版本
- 2) 寫本
- 3) 複製本: 覆刻版, 影刻版, 影印本, 石版, 騰寫版, 拓本
- 4) 特殊版: 勅版, 官版, 內閣版
- 5) 發行地, 發行者, 藏版者: 全州版, 海印寺版

《古書分類目錄法(下)》(千惠鳳, 1970)

- 1) 간행순서: 原刻版, 初刻版, 後刻版, 覆刻版, 翻刻版, 輔刻版
- 2) 木版
- 3) 活字版: 古活字版, 木活字版
- 4) 石印版, 影印版, 油印版, 拓印版, 鈴印版
- 5) 寫本

《韓國古書整理法研究》(尹炳泰, 1983)

- 1) 木版本
- 2) 活字本
- 3) 木活字本
- 4) 鉛印本
- 5) 石印本(石版本)
- 6) 影印本
- 7) 寫眞本
- 8) 靑寫眞本
- 9) 油印本(騰寫版本)
- 11) 拓本
- 12) 印譜
- 13) 寫本

〈古書編目規則〉(金致雨, 1975)

- 1) 活字本
- 2) 木版本
- 3) 寫本
- 4) 影印本
- 5) 拓本, 石版本, 騰寫本

〈中國機械編目格式〉(國立中央圖書館, 1984)

- 1) 寫本
- 2) 刊本
- 3) 活字本
- 4) 套印本
- 5) 石印本
- 6) 其他

〈出版·印刷·圖書館學·著作權·매스컴〉(鄭泰爰, 1986)

- 1) 출판자: 勅版, 官版, 內閣版, 藩版, 光悅版(本), 直江版, 春日版, 高野版 등
- 2) 출판지: 會津版, 薩摩版, 堺版, 駿河版 등
- 3) 판목인쇄형식: 古活字版, 活字版, 木活字版, 등

이상을 종합해보면 고서의 판정보 범주를 대개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 1) 시대: 高麗版, 宋版, 明版 등
- 2) 지역: 全州版, 海印寺藏版 등
- 3) 간행동기: 勅版, 欽定版 등
- 4) 간행방식: 木版, 活字版, 石版, 影印版, 寫眞版 등
- 5) 간행기관: 內閣版, 刊經都監版 등
- 6) 간각순서: 원각본, 초각본, 후각, 복각, 번각, 보각 등

이상에서 신간서와는 달리 고서의 경우에는 내용에 대한 추가 및 정정여부에 관계없이 제판의 특정판에 관한 정보가 주로 취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내용과 상관 없이 판형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는 판종으로 이는 간행연도를 추정하는 기능 이외에도 동일 제판에서의 여러 판형을 구분해주기 위한 것이며, 둘째로는 특정판을 통해 간각의 선후 즉 간행시기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보조수단으로 신간서의 “판을 거듭한다”는 의미의 ‘刷(Imprint)’와 같은 성격의 원각, 초각, 후각, 복각, 번각, 보각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고서의 경우에는 쇄의 개념도 동일도서의 제판에 대한 순차를 결정해준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초판, 2판, 3판 등 간행된 도서의 제판에 대한 순차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아 판정보로서 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것 같다.

이상을 요약해보면 고서의 서지작성시 판사항에 기술해야하는 정보는 그 기능상

크게 두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내용에 대한 실제적인 개정이 있어 개조전의 도서와 내용적으로 구분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 즉, “동일 저작중의 다른 판에 관한 정보”(AACR1, 1967)인 판차정보이며, 또 하나는 내용과 상관없이 판형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 즉, “동일판차중의 다른 판에 관한 정보”(AACR1, 1967)인 판종정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판차와 판종의 구분은 실제로 초기의 여러 목록규칙에서 동일서의 제판에 대한 간삭순서를 알 수 있는 판차와 간행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판종을 구분하여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차후에 이들 규칙이 고서목록규칙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먼저, 《朝鮮東書編目規則》(朴奉石, 1948)에서는 판사항은 별도의 항목을 주지 않고 아래와 같이 출판사항의 일부로 기술하도록 되어 있으며, “판수는 制版을 달리하여, 再版, 三版한 것은 「2版」, 「3版」등으로 著錄하고 增補, 改訂 등은 「增補何版」, 「改訂何版」등으로 著錄하도록”(제129조)되어있고, “판판, 내각판과 같이 특수한 판종은 이를 著錄한다”(제137조)라고 되어 있어 판수와 판종에 대한 구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또한 《東書編目規程(草)》(朴熙永, 1955)에서는 “개정, 증보 등의 판차는 저자표시 다음에 기재하고, 내용에는 개정증보를 가하지 않은 단순한 서수에 의한 판차 또는 쇄차는 출판년 다음에 기재한다”(제110조)고 되어 있어 판차와 쇄차의 명확한 구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출판사항에서는 “...출판지, 출판자, 출판년, 출판차, 판종의 순서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되(제112조), 인쇄의 종류는 특수한 판종일 때에는 「宗版」, 「高麗版」등과 같이 기재한다.”(제127조)고 명시하여 표제사항에서 취급하지 않은 판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漢籍編目規則》(成均館大學校中央圖書館 編, 1962)에서는 《朝鮮東書編目規則》에서와 같이 판사항을 별도의 항목으로 두지 않고 출판사항에 간본과 사본으로 구분하여 각각 판차, 판종에 관한 정보를 기술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記述順序와 方式

앞장에서 고서의 서지목록시 기술되어야 할 판사항은 그 특성상 몇가지 점에서 일반도서의 그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판사항의 기술순서는 일반도서의 경우 ISBD에 따라 무조건 서명저작사항 다음에 기술하던 것과는 달리 출판사항안에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판정보의 기능차이에서 기인한 것 같다. 이에 본장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여러 고서목록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판사항의 기술순서와 방식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1) 대조사항의 삼도와 장정사이에 기술하는 방식

이 방식에 해당하는 목록규칙은 《古書目錄規則》(白麟, 1966)으로 본규칙에서는 지금까지 언급한 목록규칙과는 달리 판에 관한 정보를 실제로 내용의 개정이나 증보를 판차와 인쇄방법에 따른 판종을 구분하여 그 기술장소를 달리한 것으로 즉 판차의 경우는 저지표시 다음에 기술하고 판종의 경우는 형태사항의 일부 즉 插圖와 裝幀사이에 기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는 아마도 고서목록은 검색과 식별기능이외에도 그 도서의 외형적 특징을 표시하여 주므로써 서목으로서 뿐만 아니라 서지연구자를 위하여는 목록자체로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한다(白麟, 1968)는 점에서 형태사항의 일부로 취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 21卷8册, 古活字本(丁酉字) 36.5×23.5cm.

2) 판차사항에 판의 명칭을 함께 기술하는 방식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목록규칙으로는 《古書分類目錄法(下)》(千惠鳳, 1970)으로 본목록법에서는 “판표시는 저지표시의 다음 또는 서명(권차포함) 다음에 판차 또는 판의 명칭을 기재한다”고 ‘영미목록규칙’을 준용하여 명시하여

두고, 판차와 판의 명칭을 모두 판사항에 함께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古書編目規則》(金致雨, 1975)에서도 “판본 및 판차표시는 저자표시 다음에 2字 간격을 띄고 기재한다”라 명시하고 《古書分類目錄法(下)》의 판사항 기술순서와 같이 별도의 판사항을 두고 있다. 이는 앞의 방식에서와 같이 판차와 판종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다만 “판종류의 명칭표시로서 同書異版을 간행된 次序대로 넉넉히 가름에 낼 수 있다”(千惠鳳, 1970)는 이유로 판차와 판종을 모두 서명저작 사항뒤에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예) 農巖集(朝鮮)金昌協 著. 芸閣印書體字本.

3) 출판사항다음에 판차와 판본표시를 하는 방식

이 방식은 초기의 목록규칙인 《朝鮮東書編目規則》(朴奉石, 1948)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漢籍編目規則》(成均館大學校中央圖書館 編, 1962)에서 채택한 것으로 판사항을 별도의 항목으로 두지 않고 출판사항의 일부로 기술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판종중에서도 그 기술순서를 정하여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5장제1절 通則

37. 출판사항의 종목과 그 기입순서: “간본 사본의 요기입사항은 다음과 같음”

(1) 刊本

- | | |
|--------|-------|
| ① 出版地 | ② 發行地 |
| ③ 發行年紀 | ④ 版次 |
| ⑤ 版種 | |

(2) 寫本

- | | |
|--------|--------|
| ① 寫者居地 | ② 書寫年紀 |
| ③ 書寫種 | |

54. 판종의 감정 및 채기: 판종이 명기된 것 외에는 실물을 감정하여 그 해당하는 판종을 각괄호〔 〕안에 기입함.

- 〔例〕 ① 〔木板〕
② 〔鑄字版〕

55. 판의 종류와 그 기입순: 판종은 다음 순서에 의하여 기입함.

(1) 간행동기의 판별(欽定版 勅版 等)

(2) 板材種類의 版別(木版, 活版 等)

又は 인쇄방법에 의한 版別(石版 影印版 等)

〔例〕 ① 李朝 世宗10御定鑄字版

② 清高宗25 欽定 木版

이와같이 판사항을 출판사항의 일부로 보는 근거는 아마도 판사항의 기능이 어떤 저작을 다른 저작으로부터, 동일 저작중의 다른 판, 어떤 경우에는 동일판차중의 다른 발행에서 확인하고 식별하는 것 이외에도 고서의 경우에는 그 간행시기의 추정 이 더 큰 중요한 기능이 되므로 아마도 출판연도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판사항 정보를 출판연도에 대한 보조기술로 이용하기 위해서 출판사항에 함께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4) 주기에 기술하는 방식(비의회도서관의 인쇄카드)

5) ISBD(A)의 판사항위의 “자료(출판물의 유형)의 특성명세”부분을 활용하는 방식

《韓國古書整理法研究》(尹炳泰, 1983)에서는 ISBD(A)의 “자료(혹은 출판물의 유형) 특성명세”과 《AACR2》 “자료(혹은 출판물의 유형) 특성명세”를 활용하여 판사항(Edition Area) 다음에 판본사항을 두어 고서의 판사항을 기술하도록 제의하고 있는데 이는 그 간행방식이 일반 단행본과 다른 것으로 보고, 고문헌의 판본사항을 일반도서의 판사항 개념과 구별하여 고서의 식별을 용이하게 위해 이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인 것 같다.

이상에서와 같이 판사항의 기술방식과 순서가 저마다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다르게 명시되어 있으나 분담목록을 위한 서지기술의 표준화라는 점에서 미명히 통일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표준목록규칙인 KCR와 대비해보면 다음과 같다.

| | KCR3 | A 방식 | B 방식 | C 방식 | D 방식 | E 방식 |
|-------|------------------|---------------------|---------------------|--------------------|------|----------------------|
| 기술 범위 | 내용적 형태적 변이가 있는 것 | 간행방법에 따른 판의 종류만을 기술 | 판차와 판종을 모두 포함 | 판차와 판종을 구분 | - | 간행방법에 따른 판종만을 기술 |
| 기술 순서 | 서명 저작사항 다음의 판사항 | 형태사항의 삽도와 크기사이 | 서명 저작사항 다음의 판사항 | 출판사항의 일부 | 주기사항 | 판차사항 다음의 자료특성 명세사항 |
| 기술 방식 | 으뜸정보원의 用字대로 기술 | 인쇄방식 및 字體名을 함께 기술 | 판차와 판의 명칭을 함께 기술 | 반드시 판차·판종순으로 기술 | - | 목판본등 12개의 항목중에서 기술 |
| 비고 | 복제본 및 저작의 특성은 제외 | 판차는 서명저작사항에 따로 기재 | 판차와 판종의 개념을 구분하여 기술 | 간·사본구분후 판종과 판차를 구분 | - | KCR에 없는 고서만의 판사항을 적용 |

이상을 요약하면,

첫째, 판사항의 기술범위의 경우 KCR3에서는 영인본, 복사본 등의 복제본과 해당판의 내용과 형태와 관계없이 그 저작의 특성을 나타내는 어귀를 제외하고는 모두 판사항의 범주에 넣고 있음에 비해, 대부분의 현행 고서목록규칙에서는 실제로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해서 조판을 개조한 이른바 “동일 저작중의 다른 판에 관한 정보”(AACR1, 1967)인 판차정보와 내용과 상관없이 판형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이른바 “동일판차중의 다른 판에 관한 정보”(AACR1, 1967)인 판종정보를 엄밀히 구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문헌의 경우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는 물론 학술연구의 완벽한 인용자료

가 되기위해서 그 간행시기의 추정이 더 큰 중요한 기능이 되므로 그 기술대상의 범위도 그만큼 복잡하고 다양하다. 따라서 단순히 그 대상자료에 대한 최신성 여부의 식별보다는 해당 저작의 眞僞 및 간행연도 추정의 기능이 중시된다는 점에서 신간서와 같은 기능을 가진 판차사항은 일반 단행본의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되, 판중위주의 판정보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기술순서의 경우는 KCR3를 비롯한 일반 단행본을 위한 목록규칙에서는 ISBD의 형식에 따라 모두 서명저작사항 다음에 기술하고 있음에 비해 《古書分類目錄法(下)》(千惠鳳, 1970)과 《古書編目規則》(金致雨, 1975) 이외의 모든 고서 목록규칙은 그 순서가 각각 형태사항, 출판사항, 주기사항에 기재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KCR3이 아닌 AACR2와 ISBD(G)와 (A)에만 있는 자료(혹은 출판물의 유형)특성명세를 활용하는 등 다양하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사용중인 다른 유형의 자료형식과의 호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ISBD라는 대전제하에 서명저작사항 다음에 기술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전통적인 카드목록상에 자유롭게 표현되지 못한 판본정보가 그 특성상 저자명이나 서명 등 개별적인 검색어와 달리 별개의 검색대상이 되도록 고서만의 특별검색을 위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IV. MARC 형식의 적용

앞장에서 제시한 고서만이 가지는 판사항의 특성을 전통적인 서지목록기술방법상에서 특정 정보로 부각시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저작의 종류와 특성은 물론 출판매체의 처리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정보처리기능을 해주는 MARC형식의 특성을 활용하는 것도 이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라 생각된다.

1. 서브필드의 활용

고서의 판사항 정보로 중요한 것이 바로 판종정보라는 것은 이미 앞장에서 언급했거니와 이를 ISBD(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라는 절대적인 규칙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판차와 판종을 구별하여 기술하는 방법으로 다음 표에서와 같이 기존의 KOMARC의 250tag(판사항)의 서브필드 활용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 한국문헌자동화목록규칙 : 단행본용 | 고서용 형식 | 비 고 |
|----------|-----------------------------------|---|--------|
| TAG | 250판사항 (Edition statement) | 250판사항 (Edition Statement) | |
| Subfield | 식별기호 \$a-판표시 \$b-당해판의 저작자표시 | 식별기호 \$a-판표시 \$b-당해판의 저작자표시 \$c-판종표시 | \$c 신설 |

2. 부호화 필드의 활용

부호화 정보필드의 기능은 그 필드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가변적이며 레코드 처리의 효율화, 목록정보의 검색효율화, 정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임현자, 1987), 이러한 부호화 정보필드를 MARC 포맷에 설정한 이유를 Knapp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Knapp, J. F., 1968) 이를 판종 정보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통 인간에 의해서 묵시적으로 판별되는 데이터를 기계가독이 가능한 레코드 정보로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함이다.

— 지금까지 판종정보를 단지 목록기술상에 자연어로 나열하는 것에 만족해왔으나 이를 기계어로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

둘째, 레코드의 특성은 그 레코드의 내용으로써 판별되는데 어떤 특별한 데이터 요소를 설정하여 그런 중요한 특징을 지시해주기 위함이다.

— 지금까지 판에 관한 특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그 레코드의 내용을 검토하거나 심지어는 실물을 분석한후에 그 특성을 살필 수 있었으나 부호화정보를 활용하여 입력시점에서 분석자가 그 특성을 확정하여 입력하므로, 검색자가 레코드의 내용과 실물을 확인하지 않고 알 수 있다.

셋째, 가변장 필드에 이미 존재해 있는 내용을 코드화하여 고정장 필드에 설정해 놓음으로써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 지금까지 목록카드상에서는 서명이나 저자 등 일반적인 검색요소로만 접근(access)해왔으나 이를 활용하면 판종정보로도 제한검색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결국 이 부호화정보화 필드는 저자명이나 서명 등 개별적인 명사군과는 달리 다른 별개의 검색대상이 되도록 고정장의 경제성을 이용하여 설계한 것으로 따라서 ISBD라는 일정한 틀에 있는 전통적인 카드목록상에 자유롭게 표현되지 못한 정보를 이러한 부호화 정보를 활용하면 검색효율은 물론 복잡한 고문헌의 정보처리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3. 적용방법

부호화 정보필드는 어떤 저작의 여러가지 관점을 정의한 부호화 데이터로 USMARC를 비롯한 기존의 모든 MARC형식에 설정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세계적인 서지기술표준원칙에 합당하면서도, 도서관의 서지적 특성을 살려, 편리하고 다양한 컴퓨터의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표준 MARC인 KORMARC를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하되 그 방법으로는 부호화 정보필드의 내용이 서지데이터의 요소처럼 어떤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MARC형식에서 정의하는 것이므로 이 필드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

지 않으므로 기존에 이미 KORMARC에 설정된 부호화 정보필드 중 고서의 판정보에 관련있는 부분을 새롭게 정의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우선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단행본용> (국립중앙도서관, 1993)에 설정되어 있는 008tag 부호화 정보필드중 고서목록기술사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 : 단행본용 | | | 고서용포맷 과의 비교 |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 (KOMARC)에 관한 연구 - 고서용포맷 - |
|-------------------|----------|----|-------------------|--|
| 자수위치 | 데이터 요소 | 자수 | | |
| 0-5 | 입력일자 | 6 | | |
| 6 | 발행년유형 | 1 | | |
| 7-10 | 발행년1 | 4 | | |
| 11-14 | 발행년2 | 4 | | |
| 15-17 | 발행국명 | 3 | | |
| 18-21 | 삽도표시 | 4 | 해 당 없 음 | 공 백 |
| 22 | 이용자대상자수준 | 1 | " | " |
| 23 | 자료식별표시 | 2 | | |
| 24-25 | 내용형식 | 2 | | |
| 26-27 | 한국대학부호 | 2 | 해 당 없 음 | 공 백 |
| 28 | 수정레코드 | 1 | | |
| 29 | 회의간행물 | 1 | 해 당 없 음 | 공 백 |
| 30 | 기념논문집 | 1 | " | " |
| 31 | 색인 | 1 | | |
| 32 | 목록전거 | 1 | | |
| 33 | 문학형식 | 1 | 해 당 없 음 | 공 백 |
| 34 | 전기 | 1 | " | 傳記, 誌狀, 行錄, 實記 |
| 35-37 | 언어부호 | 3 | | |
| 38-39 | 한국정부기관부호 | 2 | 해 당 없 음 | 공 백 |

* USMARC의 경우 부호화 정보필드(008/00-39) 중 008/00-17과 008/35-39는 여러 자료의 유형(Materials type)의 공통부호로 사용되고 나머지 008/18-34는 각 자료의 유형에 따라 사용하도록 정의하고 있는데 고서에 해당되는 'Archival and manuscripts control'에는 아직 이 부분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

위의 표에서와 같이 고서의 특성을 부호화 할 수 있는 영역은 008/18-21, 008/22, 008/26-27, 008/29, 008/30, 008/33, 008/38-39 로 이 중 판사항 정보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으로 008/18-21(삼도표시)를 활용하여 앞장에서 제시한 고서의 판사항 정보의 범주 중에서 가장 고서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간행방식에 의한 판정보를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우선 간행방식에 의한 판정보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정보는 사본과 간본의 구분으로 실제로 《漢籍編目規則》(成均館大學校中央圖書館 編, 1962) 등 여러 목록규칙에서와 같이 이미 사본과 간본을 우선 구분한후에, 판종정보를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선 사본과 간본을 구별하되 간본을 목판본, 활자본, 석인본으로 더 세분하여 寫刊여부의 정보를 부호화로 표시하도록 한다.

008/18 寫刊의 區分

- b. 불명확
- a. 寫本
- b. 木版本
- c. 活字本
- d. 石印本
- e. 기타

2) 앞항의 008/18(寫刊의 구분)에서 사본으로 구분된 자료는 이 항목에서 稿本, 傳寫本, 寫經 등으로 세분한다. (千惠鳳, 1993)

008/19 寫本

- b. 불명확
- a. 稿本
- b. 傳寫本
- c. 寫經

3) 앞항의 008/18(寫刊의 구분)에서 목판본으로 구분된 자료는 이 항목에서 寺

利版, 官版, 家版, 祠院版, 坊刻版 등으로 세분한다. (前間恭作, 1985)

008/20 木版本

- a. 寺刹版
- b. 官版
- c. 家版
- d. 祠院版
- e. 坊刻版
- f. 기타

4) 앞의 008/18(寫刊의 구분)에서 활자본으로 구분된 자료는 이 항목에서 금속 활자본에서 부터 鉛活字本에 이르기까지의 활자의 유형을 부호화하여 기술한다.

008/21 活字本

- a. 金屬活字本
- b. 木活字本
- c. 鉛活字本
- d. 기타

또한 이상과 같이 여러 판정보중 간행방식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부호화정보로 활용하는 방법외에도 판의 종류를 다양한 관점에서 보편적으로 부호화가 가능한 것들을 중심으로 각각 범주화하여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 g. 008/18-22

1) 18 時代

: 高麗版, 宋版, 明版 등

2) 19 地域

: 全州版, 海印寺藏版 등

3) 20 出版刊行動機

: 勅版, 欽定版 등

4) 21 出版材料 및 方式

: 木版, 鑄字版, 活字版, 石版, 影印版, 寫眞版 등

5) 22 出版機關

: 內閣版, 刊經都監版 등

V. 結 言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신간서와 고서간의 판의 기능과 그에 따른 기술범위는 물론 그 기술방식을 각각 비교하여 본 결과, 고서의 판사항 기술시 다음과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일반 단행본의 판사항에는 주로 내용에 대한 실제적인 개정여부에 따라 개조전의 도서와 내용적으로 구분하여 최신자료를 식별하기위한 판차정보를 위주로 기술하는 반면에 고서의 판사항에는 내용과 상관없이 판형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위한 판종정보를 위주로 기술하게 되므로 반드시 판차정보와 판종정보를 구분하여 기술해야 한다.

둘째, 판사항의 기술순서의 경우 일반 단행본을 위한 목록규칙에서는 ISBD의 형식에 따라 모두 서명저작사항 다음에 기술하고 있음에 비해 대부분의 고서목록규칙은 그 순서가 제 각각 달라 형태사항, 출판사항, 주기사항에 기재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KCR3이 아닌 AACR2와 ISBD(G)와 (A)에만 있는 자료(혹은 출판물의 유형)특성명세를 활용하는 등 다양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통일을 위해, 가급적 이미 사용중인 다른 유형의 자료형식과의 호환을 고려하여 반드시 ISBD라는 표준 서지기술법에 따라 서명저작사항 다음에 기술하되, 이와같이 전통적인 카드목록상에 자유롭게 표현되지 못한 판본정보가 그 특성상 저자명이나 서명 등 개별적인 검색어와 달리 별개의 검색대상이 되도록 고서만의 특별검색을 위한 방법이 모색되

어저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위해 저작의 종류와 특성은 물론 출판매체의 처리방법에 따라 정보처리기능을 다양한 MARC형식의 특성을 활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서의 판사항기술시 판차와 판종의 구분을 위해서 해당 tag내에서 판차와 판종을 각각 서브필드로 구분한다.

둘째, 전통적인 카드목록상에 충분히 표현되지 못한 판본정보가 별개의 검색대상이 되도록 하기위해 기존의 KORMARC에 설정된 부호화 정보필드 중 고서의 판정보에 관련있는 부분을 새롭게 정의하여 이를 활용한다.

〈參 考 文 獻〉

- 국립중앙도서관 편.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1993.
- 圖書館自動化作業規劃委員會 中國機讀編目格式工作小組. 中國機讀編目格式, 第二版. 臺北 : 國立中央圖書館, 民國73(1984).
- 金致雨. 古書編目規則. 서울 : 景仁文化社, 1975.
- 朴奉石. 朝鮮東書編目規則. 서울 : 국립도서관, 1948.
- 朴熙永. 東書編目規程(草).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55.
- 白 麟. 古書目錄規則. 서울 : 서울大學校圖書館, 1966.
- 白 麟. “目錄學의 概念과 古書目錄의 記述問題.” 도서관. 128(1968.9).
- 成均館大學校中央圖書館 편. 漢籍編目規則. 成均館大學校中央圖書館. 1962.
- 植田喜久次 著. 目錄作成の技法, 改訂版. 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1992.
- 尹炳泰. 韓國古書整理法研究. 利久出版社, 1983.
- 이명규. “현대목록규칙에서의 판차사항.”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89.

日本圖書館協會. 日本目錄規則.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87.

임현자. "MARC의 상호이용을 위한 MARC포맷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
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7.

前間恭作 著. 安春根 編譯. 韓國의 版本學. 서울: 汎友社, 1985.

鄭泰爰. 出版·印刷·圖書館學·著作權·매스컴. 서울: 日晷閣, 1986.

千惠鳳. 古書分類目錄(下).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0.

千惠鳳. 韓國書誌學. 서울: 民音社, 1993.

韓國圖書館協會. 韓國目錄規則.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90.

한국정보관리학회.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KORMARC)에 관한 연구: 고서용포맷.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92.

ALA.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North American text*. Chicago: ALA, 1967.

ALA.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2nd ed. Chicago: ALA, 1978.

Knapp, J. F. "Design Consideration for the MARC Magnetic Tape
Formats." *Journal of Library Automation*. Vol. 4, No. 1 (1968).

Library of Congress. *MARC formats for bibliographic data*. Washington DC:
Processing Services, LC, 1980.

A Study on Edition Statement of the Oriental Traditional Books

Jae-Hyeok Park*

〈Abstract〉

In comparing with the role, scope, and description method of edition statement between monograph and old traditional books, There are some problems solving as follows.

1) Kind of issue offering information on variant imprint must be distinguished from edition merely identifying the newest thing among same materials in the edition area of old traditional books.

2) because of a rule that edition statement follow title statement according to ISBD, could not make a most of the characteristics of old traditional books.

As a result of applying MARC format for solving above the problems, the followings have been identified.

1) Subfield in the 245tag can be made a distinction between kind of issue and edition with when describing edition statement of old traditional books.

2) As defining newly the Fixed-Length Data Elements of Marc format, not only basic index terms, such as author, title, etc., but also edition statement on variant kind of issue will be able to provide with restrict index terms.

*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aelim College of Technology